

## 5) 무조전설

씻김굿 첫부분에 '앙와 임금아 공심은 절에 두고 남산은 본이로다... .'로 시작하는 무가가 있다. 일명 '공심풀이'라고 불리는 무가이다. 굿을 하는 장소와 시간을 알리고 당산, 철룡, 성주, 조상 등을 청해 들이는 무가이다. 여기에 나오는 '공심'은 무조로 설명된다. 그런데 그것은 무가로 불리는 게 아니라 전설로 단골들에 의해 구전되고 있다. 본래 풀이 형식의 무가, 즉 공심풀이로 불리던 것인데, 전설로만 전승되고 있는 것이라고 추측된다. 공심전설은 몇 가지 흥미로운 요소를 담고 있다. 무당의 시원, 단골과 고인이 짝을 맞추게 된 유래, 무복의 유래, 단골이 천인이 된 유래, 단골판이 생기게 된 유래 등을 말하고 있다. 그것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박경자 : 공심풀이가 옛날에는 이게 치국풀이라 이것이. '앙와 임금아 공심은 절에 두고 남산은 본이로다... .' 옛날에 앙와 임금아 왕의 딸이 신이 와가지고 이렇게 인자 시부령 시부령 거리고 뭐라고 그러면 인자 그 병이 낫고 그러니까, 왕의 딸이 그런 짓거리를 하니깐 인자 말하자면 남산은 본이로다, 남산으로 귀양을 보냈다고 그래, 옛날에 노인들 말들어보면. 남산으로 이 딸을 귀양을 보내불었어 그래서 공심이 본이 남산이 본이라. 공심이 본터가 남신이 본터라 그랬어 '앙와 임금아 공심은 절에 두고 남산은 본이로다 조선은 국이요, 팔마는 사두서경이며 개성도 본도 서울 집터 잡아 삼신삼천 내리토올려 이수팔수... .' 치국이 생겨갖고, 치국말이라 그래 옛날부터 이것을. 언제든지 소소한 비손을 허든지 굿을 할 때에도 앙와 임금을 먼저 찾아야 돼.(조사자 : 공심풀이를?) 응, 공심풀이를 먼저 해야 돼.

앙와 임금아, 공심이가 왕의 딸이라. 남산으로 귀양을 보내불었어. 공심이라는 왕의 딸이 미쳐 왕이 귀양을 보냈어. 그랬는데 죽을 사람이 있으면 공심이가 뭐라고 하면 그 사람이 낫았어. 그래서 '유교가 생겨났어. 나중에 중국서 왕자가 나와, 그래서 둘이 남자가 고인이고 여자는 무가여. 남자는 악사를 하고 무가는 남자, 여자가 지고 다니는 것이라.

그래갖고 인자 공심이가 그걸 헌께 어떻게 공심이를 벼슬을 줬어, 벼슬을 줬. 그래서 우리 무가들이 옷을 허면 그 벼슬아치 입는 무복을 안입습니까. 그래서 그 무복을 입어야 돼. 그래갖고 공심이를 인자 무지하게 벼슬을 줬어. 사람을 낫고 살리니까. 벼슬을 준께, 인자 니도 헌다 나도 헌다 그래갖고 결국은 가서 아겔 천인으로 돌린 거이라. 천인으로 돌려서 우리 같은 사람들은 일반 천인이다. 너무 이것을 많이 허니까 너도 헐라하고 나도 헐라허니까. 그래서 이것이 공심이풀이라.(조사자 : 중국서 왕자가 나왔어요?)

김순태 : 왕자가 나왔어. 그게 인자 귀양을, 이 공심이가 왕의 딸인디 남산으로 귀양을 보내불었어. 왕의 집안에서 정신이 인자 미쳐 나가지고 돌아다니고 그러고 다니고 그런께. 중국서 왕자가 또 인자 중국도 왕자가 그렇게 돼불었거든.(조사자 : 미쳐서?) 미쳐갖고 인자. 지슴같으면 미친 사람으로 그렇게 인정을 했제. 신이 왔다는 것을 그때는 생각을 안했거든. 그래갖고 둘이서 남산에서 만나갖고 말함시롱 인자 어디 손가락 가리키고 가면, 어디가면 요런 병이 든 사람이 있다고 하면 둘이 가서 축원하면 낫고, 축원하면 낫고 그러니까, 결국은 요것이 벼슬을 줬는께 도새 사위고 딸이니까 헐 수 없이 주는 거이라.

그래갖고 중년에 차꼬 내려오면서 인자 서로 헐라 허거든 하도 인자 너도 헐라 나도 헐라 그러니까. 요것을 천인으로 칠반천인으로, 칠반천인에는 안들어가지만 인자, 원래가 옛날에는 벼슬을 안허고 뫼을 안허면은 전부 상놈이거든, 성밖에 사는 사람은 상놈이라 성안에 사는 사람만 양반이고. 그래갖고 요것이 인자 천인 축으로 들어갔던 거이제. 그런께 인자 난중

에는 각 팔도로 공심이 제자들을 하나씩 보낸거여. 그래도 요것이 불어난께 인자 마을로 이리저리 쩌 나눠갖고 니는 요 마을을 해라, 니는 조 마을을 해라, 그래서 요렇게 판이 생기고 그런 거이라.

박경자 : 그렇게 이렇게 칠반천인으로 때려놓으면 안해 먹거든. 그래서 안해먹잖아요. 요즘에는 공심이가 다없어져 불잖아요, 우리가 공심인디. 안허잖아요 우리들이 천인이 된께. 안헐라 그래 인자 지금은 자식들이고 뭐고 이런 것 헐라 그래요? 안해불어 그런께 없어져 불잖아요.

김순태 : 인자 요것이 대학교수들도, 아 이것이 옛날에 근본이 왕의 딸이라는 것을 다 알제. 왕의 딸이 시조, 근본이제. 우리 첫 시조, 근본.

박경자 : 그래서 양와 임금을 먼저 찾아야 된다니까. 각 석마다 공심이풀이를 해야 된다니까.

요컨대 위의 무조전설은 무당들의 시조가 왕의 딸이라는 것이다. 무당들이 천시당하고 있지만, 본래는 왕의 딸인 공주의 신분으로 결코 미천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다. 그렇지만 이 전설이 제보자들의 설명처럼 그러한 사실만을 전하는 것은 아니다. 무당의 시원, 단골과 고인이 짝을 맞추게 된 유래, 무복의 유래, 단골이 천인이 된 유래, 단골판이 생기게 된 유래 등을 전하고 있다. 매 곳거리의 첫부분에서 ‘양와 임금이 공심은 절에 두고 남산은 본일러라... .’를 부르는 것은 이러한 무속의 중요한 문제와 관련이 있어서이다. 공심풀이의 무가상의 기능이 단순한 허두가만은 아니라고 여겨진다.

#### 참고자료

나경수, 『천남의 민속연구』, 민속원, 1994.

민속학회, 『한국민속학의 이해』, 문학아카데미, 1994.

이종철 외, 『탐녜의 벽수』, 김향문화재단, 1990.

이경엽, 『무속신앙』, 『천라남도지』 제19권, 전라남도, 1995.

지춘상, 『승주군의 민속자료』, 『승주군 문화유적지표조사』, 승주문화원, 1984.

지춘상, 『주암댐 수몰지구 민속유적조사보고』, 『주암댐 수몰지구 지표조사보고서』, 전남대박물관, 1985.